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장경남**

【 차례 】

- I. 머리말
- II.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삶과 전란 극복
- III.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문학적 재능
- IV.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의 욕망 표출과 전란의 극복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이 논문은 정경운의 일기 『고대일록』을 통해서 지방의 한 개인인 정경운이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읽어낸 글이다. 『고대일록』은 여타의 일기와는 달리 다양한 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漢詩를 비롯해 안음·거창에 보내는 <通文>, 도사 김영남에게 보낸 <書簡文>, 제문인 <祭盧參奉文>, <移安祭文>, <祭智異山祈雨文>, 說 문학인 <牧丹側柏說>, 친구와 가족의 죽음을 애도한 <卒記>, 그리고 <自傳>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유사로 활약하면서 통문을 작성한

* 이 논문은 “일기로 본 17세기 초 영남사회의 재건”이라는 주제로 2014년 일기자료 심층연구포럼(한국국학진흥원, 2014.11.21.)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점은 정경운이 함양 지역을 대표하던 문장가였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문학적 재능은 과거에 도전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중 정경운이 관직 진출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인 흔적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과거 시험의 잦은 응시와 함께 과거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그것이다. 정경운은 전란기간 내내 관직 진출을 염원하였지만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정경운은 문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전란이라는 상황에서도 과거시험이나 관직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는 욕망은 전란이라는 불안한 시대를 이겨내고 자신과 가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정경운, 고대일록, 임진왜란, 일기, 경상우도, 함양

I. 머리말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일본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전란 초기에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던 조선은 그나마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군의 활약에 힘입어 전란을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병은 전란 기간 동안 영남 지역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병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족은 전란 이후에도 영남사회를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함양에서 전란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전란 체험을 일기로 남긴 孤臺 鄭慶雲의 『孤臺日錄』이 단적인 예가 된다.

『고대일록』은 정경운이 전란 때 초유사 金誠一의 召募有司로, 의병장 金

沔의 召募從事官으로 활약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의병활동을 비롯해, 당시의 전언이나 편지, 朝報, 榜文까지 수록하였다. 또한 鄭仁弘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사족 신분으로 고향인 함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정황들도 생생히 기록하였다. 임진왜란부터 종전 후까지 함양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 및 지역 인물과의 교류 등은 『고대일록』에 고스란히 기록된 것이다. 『고대일록』은 한 사족이 겪었던 개인 전란 체험기인 동시에 함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의 동향과 전후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기록물인 셈이다. 즉, 『고대일록』은 함양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18년간 겪은 일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는데, 전후 복구 시기 전란 극복의 주역이었던 사족의 지역 사회에서의 위상과 그 동향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함양에 거주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므로 여러 사건의 시계열적 이해와 지역 사회의 변화 양상을 잘 알 수 있다는 자료적 장점이 있다.¹⁾

『고대일록』은 오이환에 의해서 1986년에 발굴 공개된²⁾ 이후로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윤우는 『고대일록』을 영인하여 학계에 소개하는 지면을 통해서 고대 정경운의 생애와 『고대일록』의 전승 경위를 밝힘으로써 연구의 토대를 놓았다.³⁾ 이를 통해 『고대일록』의 실체는 학계에 알려졌고, 임진왜란기에 쓰여진 실기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소개되었다.⁴⁾ 양반층 주도의 전후 복구사업의 전개에 대한 연구에서 『고대일록』

1) 노영구, 「총론: 전쟁과 일상 - 『고대일록』을 통한 임진왜란 이해」,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17-31쪽.

2) 오이환, 「남명집 판본고(1)」, 『한국사상사학』 1, 한국사상사학회, 1987, 171-205쪽.

3) 김윤우, 「함양 의병유사 정경운과 『고대일록』」, 『남명학연구』 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141-169쪽.

4)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8, 1-277쪽.

최재호, 「남명학과의 임진왜란 전쟁실기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1, 1-256쪽.

을 활용한 연구,⁵⁾ 그리고 함양을 포함한 경상우도 의병의 활동과 전쟁사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⁶⁾ 등이 이어졌다. 이후 『고대일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전개되었는 바, 향촌사림의 전란체험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핀 공동의 연구는 연구사적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⁷⁾ 『고대일록』을 번역하면서 연구는 더욱 심화되는데, 번역과 함께 저작자의 서술의식, 정치사회적 상황, 스승 정인홍, 명군의 모습 등을 밝혀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⁸⁾ 최근에는 함양 사족층의 동향⁹⁾, 정경운의 사우관계와 학문 경향¹⁰⁾, 실록과의 비교¹¹⁾, 시와 산문에 대한 연구¹²⁾ 등으로 연구 범위가

-
- 5) 김성우, 「임진왜란 이후 전후복구사업의 전개와 양반층의 동향」, 『한국사학보』3-4, 고려사학회, 1998, 281-320쪽.
- 6) 김경수, 「임진왜란 관련 민간일기 정경운의 『고대일록』 연구」,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287-323쪽.
- 7) 노영구, 앞의 논문, 17-31쪽.
정해은,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 사족의 전쟁 체험 - 함양 양반 정경운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65-100쪽.
권기중, 「임진왜란 시기 향리층의 동향과 전후의 향리사회 -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101-125쪽.
이선희, 「임진왜란 시기 함양 수령의 전란대처 - 『고대일록』을 중심으로」, 『진단학회』 110, 진단학회, 2010, 95-123쪽.
- 8) 정우락,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157-188쪽.
박병련, 「고대일록』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상황과 의병활동의 실상」,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235-272쪽.
설석규, 「정경운의 현실인식과 고대일록의 성격」,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187-233쪽.
신병주, 「『고대일록』을 통해서 본 정경운의 영원한 스승, 정인홍」,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307-347쪽.
한명기, 「『고대일록』에 나타난 명군의 모습」,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275-306쪽.
- 9) 원창애, 「『고대일록』을 통해 본 함양 사족층의 동향」, 『남명학연구』 3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2, 229-260쪽.
- 10) 최경진, 「『고대일록』을 통해 본 정경운의 사우관계와 학문 경향」, 한양대 석사학위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정경운에 대한 연구,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 전란 기간 중의 향촌 사림의 전란 체험 및 대응, 남명학과의 동향 연구, 정경운의 시문 연구 등으로 심화 확대된 현상을 읽을 수 있다. 특히 2007년 한국역사연구회의 『역사와 현실』 64집과 2010년 남명학연구원의 『남명학』 15집에 수록된 연구 성과는 『고대일록』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으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사실 일기 한 편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진 셈인데, 특히 전란기의 ‘전쟁’과 ‘일상’의 공존, 재지사족과 의병과의 관계, 사족으로서 체험한 전란, 수령들의 전란 대처 양상, 함양에서 접한 명군의 모습 등등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 정경운의 전란 대응 방식이다. 정경운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양한 삶의 위기에 직면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의병군 소모유사로 활동하면서 전란을 극복하였지만, 정유재란 때에는 익산까지 피란을 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러한 전란의 위기와 극복 양상은 일기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즉 『고대일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위난을 겪은 체험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사대부로서의 일상적 삶을 지속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정경운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사대부로서

논문, 2012, 1-52쪽.

- 11) 민덕기, 「임진왜란기 정경운의 『고대일록』에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문건정보 - 실록의 관련 정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141-171쪽.
- 12) 윤호진, 「고대 정경운의 시문과 작품세계」, 『남명학연구』 4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4, 121-155쪽.

의 일상적 삶의 지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의 의지였다. 정경운은 일기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한 개인의 전란 극복 의지 및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II.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삶과 전란 극복

『고대일록』의 작자인 정경운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행히 『고대일록』 4권 1605년 4월 7일자의 일기에 自述 履歷을 기록하고 있어 그의 생애를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경운은 2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외조부에게 의지하여 자랐다. 9세에 외조부가 사망하고, 13세에 어머니, 15세에 외조모가 사망하자 형에게 의지해 살았다. 19세에 형마저 잃자 형수를 우러르며 살았다. 잇따른 가족의 사망으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기에 스스로 “학업은 魚 字와 魯 字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25세에 선산 김씨와 혼인하면서 가정을 꾸려 안정을 찾았고, 26세에 정인홍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부모와 같이 우러르고 살았다. 마음으로 현인을 사모하면서 현인 되기를 바랐으며, 옛 책을 통해 자득했고, 박여량·박선·노사상·정경룡·강린 등과 벗하였다.

37세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함양에서 노사상·박선·박여량·강린·노사예 등과 함께 창의하여 각종 유사로 활약하며 적극적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39세에 노사상과 함께 남계서원의 院任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49세 되는 1604년까지 유사로서 서원의 일을 보았다. 42세 때 정유재란의 발발로 서원이 병화로 소실될 위기에 직면하자 정여창·노진·강익의 위패를 묻어두고, 가족과 함께 전라도 익산 등지로 피란하였다. 피란에서 돌아온 후에는 묻어 두었던 위판을 꺼내어 우선 조그만 집 두 칸을 지어 남계서원과 향현사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45세 때인 1600년에 당시 남계서원 원장인 盧士倣와 함께 남계서원을 나촌으로 옮기려는 논의를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50세 되던 1605년 3월에야 서원을 완공하고 위판을 봉안했다. 서원 이건 과정에서 이건을 보인 인물들과의 대립으로 인해 향촌 사회가 갈등을 빚었고, 51세 때인 1606년 향현사의 위치 문제를 둘러싸고 급기야 향촌 사회가 분열되는 위기를 맞았다. 정여창을 주향으로 하는데는 논의가 일치하였으나 노진과 강익의 병향을 주장하는 세력과, 노진과 강익은 사제지간으로 병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진의 주향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병향 주장에 앞장섰던 정경운과 강린, 강응황 등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각종 구설과 비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경운은 스스로를 경계하며 인사를 사절하고 두문하게 되었다.¹³⁾

53세 때인 1608년에는 스승 정인홍을 모함하는 세력에 맞서 꾸준히 대응하는 등 정인홍 문인으로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도 했다. 62세에 남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하고, 후일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고 학문에 뛰어난 것이 세상에 드러나 行誼로 童蒙教官에 제수되었으며,¹⁴⁾ 대략 향년 70세 내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한다.¹⁵⁾

13) 김윤우, 앞의 논문, 145-147쪽. 원창애, 앞의 논문, 253쪽. 참조.

14) 『함양군읍지』, 인물, 유행록, 정경운 조.

이렇게 정경운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형수에게 의존하면서 살다가 정인홍의 문인으로 들어가 서원의 유사로 활동하던 중에 임진왜란을 맞아 자신의 거주지였던 함양 사회의 붕괴는 물론 자기 자신의 삶도 궁핍해진 경험을 하였다. 특히 전란을 겪으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개인적인 위기를 겪었다. 정유재란 때 장녀 정아를 잃었고, 이듬해 장자 주복을 잃었으며, 45세 되는 해에 차녀 단아를 잃었고, 49세 되는 해에는 아내와 사촌누이(박여량의 처)를 잃었다.

단편적으로 전하는 기록을 통해 살펴 본 정경운의 생애는 불운한 일생 그 자체였다. 그나마 스승 정인홍을 만나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각종 활동에 참여하였고, 끊임없이 학문과 덕행을 닦으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배경에 정인홍이 자리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전란 중에는 유사로서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유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장 솜씨가 출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대일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수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정경운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문학적 재능

『고대일록』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여타의 일기에 비해 문학 작품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경운이 일상에서 늘 문학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에 문학적 표현이 자연스러웠음을 보여주는

15) 김운우, 앞의 논문, 1992, 17쪽.

것이며, 이와 동시에 문학의 효용에 대해서도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는 것이다. 정경운의 문학적 재능은 일기의 곳곳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이나 관련 기록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간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대일록』에 수록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정경운의 문학적 재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크게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그 실상을 보기로 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종종 시를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다.

○ 1593년 3월 13일

나는 병이 여전하다. 鄭玄卿이 편지를 보내 병세를 물었고, 또 서로가 몹시 그리워 울적한 심정을 겪고 있음을 말했다. ○ 節度使 松庵 金沔이 軍中에서 돌아가셨다. 송암은 깊은 산속에서 병을 다스리며 노년을 마칠 생각을 했는데, 국가가 멸망할 위기를 만나 분연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어나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을 토멸했다. 그렇지만 단지 몇 고을만 수복하였을 뿐,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른바 군대를 내어 승첩을 못 거두고 몸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니, 아! 슬프구나.¹⁶⁾

송암 김면이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멸했으나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슬퍼하고 있다. 이를 杜甫가 제갈량의 사당에 가서 감회를 읊은 <蜀相> 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 “出師未捷身先死”을 인용해 표현하고 있다.

1596년 2월 6일의 일기에는 출타했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자 조카가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어린 자식이 옷을 잡아 당가며 묻기를, 돌아

16) 남명학연구원, 『역주 고대일록』, 정경운 지음, 2009, 태학사.(이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되 해당 날짜만 밝히기로 함.)

오심이 어찌 이리도 늦으셨습니까”라는 옛 시와 같다고 썼다. 杜牧의 시 <歸家> 중에서 “釋子牽衣問 歸來何太遲”를 인용해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정경운의 일기 에는 시를 인용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한시 외에도 故事를 인용한 경우도 여러 군데 있다.

○ 1592년 6월 17일

군대를 점검하고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위로하고, 龍升亭에서 結陣했다. 崔汴을 장수로 삼고 知禮로 나아갔다. ○ 巡察使 金眸가 水原에서 도착했다. 모양새와 명분만 차렸을 뿐 行色은 초췌했다. ○ 世子를 책봉한다는 敎書와 죄인들을 사면토록 하는 赦文이 郡에 도착했다. 종이에 가득한 왕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 만약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 나라를 보전하고 난리가 나기 전에 제대로 다스렸더라면 어찌 奉天의 액운이 있었겠는가.

○ 1593년 정월 24일

(전략) 鄭德隆·盧志夫가 全州에서 돌아왔다. 두 사람이 完山에 도착했다가, 體察使가 京畿道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깃발을 돌려 돌아왔다. 오는 길에 湖南을 경유하였는데 그곳의 수령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었다고 하였다. 朝廷이 이와 같은 지경이고, 읍의 수령들조차도 역시 이러한 지경이니, 나라 일이 끝내 어떠한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듣고 돌아오자 나도 모르게 漆室의 고통이 있었다.

“봉천의 액운”은 『舊唐書』 권12 「德宗本記」에 있는, 당 덕종이 봉천으로 피난을 갔다가 朱泚의 반군에게 포위를 당한 고사이다. “칠실의 고통”은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列女傳』 권3 「柒室女」에 있는 고

사이다. 즉 노나라 칠실이란 고을에 한 처녀가 걱정하기를, “우리나라 임금 이 늙었고 태자가 어리니, 만약 국란이 있으면 임금이나 백성이 모두 욕을 당할 것이니, 여자들이 어디로 피할꼬.”라고 하였다는 데서 온 말이다.

한시와 고사의 인용을 통해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경운이 그만큼 학문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공부에 소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은연 중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알리려는 의도이지 않을까 싶다.

한시나 고사의 인용에 못지않게 직접 한시와 다양한 종류의 산문 작품을 지어 일기에 수록해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대일록』에는 도처에 한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총 20군데에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작품이 온전히 전하는 것만 5수가 있다.¹⁷⁾ 이 가운데 한시 한 편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 1598년 3월 19일

적의 무리들이 가지 않고 長水縣 안에서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행을 이룬 사람들이 비를 무릅쓰고 德翁의 집을 떠나 叡州로 향하고, 나머지는 모두 高山으로 향했다. 점심때 학두재[鶴頭峴]를 넘어 시냇가의 들판에 도착했다. 길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

아! 저 하늘이여 / 噫咄咄彼蒼者
 흉적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들 다 죽게 하네 / 使凶賊殲我人
 고산을 향해 가는데 종일토록 비 내리고 / 向高山終日雨
 만 겹의 봉우리에 구름은 천 겹이구나 / 萬疊峯千重雲

17) 윤희진은 『고대일록』에는 한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20여 군데 보이고, 스승인 정인홍의 문집인 『내암집』에 내암에게 올린 시 12수, 주변 인물의 문집에 전하는 시 2수, 그리고 『고대일록』에 온전히 남긴 시 4수가 있다고 했다.(윤희진, 앞의 논문, 131-132쪽)

정경운이 피란 과정에서 읊은 시이다. 흥적을 피해 고산으로 향하는데 비마져 내려 더욱 피란길이 고달팠던 것 같다. 길가에서 하늘을 향해 울분을 토로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만 겹의 봉우리에 구름은 천 겹”이라고 표현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전란 통해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시로 읊은 것은 정경운의 시적 능력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시 외에도 많은 수의 산문 작품이 있다. 일기에 수록된 산문 작품으로 기록만 남은 산문의 경우는 상소문, 부, 편지, 송덕비문, 진정서 등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¹⁸⁾

실제로 일기에 수록된 산문의 경우에는 안음·거창에 보내는 <通文>(1592년 6월 12일), 도사 김영남에게 보낸 <書簡文>(1592년 6월 14일)과 <祭盧參奉文>(1603년 8월 19일), <移安祭文>(1605년 3월 5일), <祭智異山祈雨文>(1605년 6월 17일) 등의 제문, 說 문학인 <牧丹側柏說>(1605년 12월 29일), 친구와 가족의 죽음을 애도한 <卒記>(손인갑, 방극지, 노지부, 딸 정아, 아들 주복, 아내 등), 그리고 <自傳>(1605년 4월 7일) 등이 있다. 일기에 수록된 대표적인 산문 작품을 갈래별로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通文이다. 정경운은 전란 직후 안음과 거창에 義擧를 촉구하는 통문을 작성했다. 1592년 6월 12일의 일기에 수록된 통문인데, 이미 한 차례의 통문을 통해 의병 궤기를 도모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다시금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다. 그 일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8) 윤호진, 앞의 논문, 132쪽.

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뜻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고 여러분의 擧事는 바로 우리의 거사입니다. 金松庵이 의거했을 당시의 계획과 조치를 입수하여 그대로 따라 하고자 합니다. 郡이 벽지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막혀 있어서 의병이 승첩을 거둘 수 있는 기발한 방책이 될 것이나 왜적이 향하는 곳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울러 가르쳐 주셔서 보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부응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받아들여 주시리라고 옳드려 생각합니다.”라고 했다.[내가 지은 것이다.] 安陰 通文은 姜克修가 지었다.[別錄에 보인다.](1592년 6월 12일)

통문은 조선시대에 민간단체나 개인이 같은 종류의 기관, 또는 관계가 있는 인사 등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통지하던 문서를 일컫는다. 서원·향교·향청·문중·유생·결사와 의병, 혁명이나 민란의 주모자들이 대체로 연명으로 작성하여 보냈으며, 그 내용은 통지·문의·선동·권유 등 다양하다. 일반 서신과 다른 점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¹⁹⁾ 특히 임진왜란 때에는 募兵과 군량의 조달을 위하여 구국의 통문들이 작성되어 의병의 조직화에 이바지하였는데,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문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의거를 촉구하는 통문을 정경운이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로 그의 문학적 재능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書簡文의 사례도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92년 6월 14일의 일기에 수록된 서간문이 그것인 바, 초유사와 도사 김영남에게 보낸 글이다. 섬나라 오랑캐에 의해 2백년 기업을 무너뜨리는 일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의병을 모집하는 일에 진력을 다했으나 모집된 군대를 통솔할 사람이 없어 훈련 봉사 최변으로 종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다.

19)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저희들은 직접 뵈고서 지시를 받았으니, 마음속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뼈가 문드러지도록 일을 도모하겠지만, 人情이 흩어져 분산되고 物力이 다해가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崔沘으로 하여금 편의대로 從事하게 하시고, 벼슬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前後에 구애받지 않게 하시며, 식량을 보급할 방도가 끊이지 않고 활과 화살은 정밀하고 강해져야만 擧事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합하의 지휘가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전달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여 참람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惶悚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都事에게 올린 편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것이다.](1592년 6월 14일)

의병을 모집하는 통문과 모집된 의병을 지휘할 사람을 천거하는 서간문을 통해서 전란 당시의 함양 지역에서의 모병 상황과 대응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적과 대치하는 상황 아래 군민이 힘을 모아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정경운이 문장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전란을 극복해 나가는 지역 사족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고대일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글이 祭文인데, 비교적 우수한 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1603년 8월 19일의 일기에 수록된 <祭盧參奉文>이다.

<제노참봉문>은 남계서원을 이전하는데 공을 세운 盧士儼를 추모한 글이다. 정경운은 1594년부터 10년간 남계서원의 유사를 역임했다. 정유재란 때 훼손된 남계서원을 1599년에 재건하였고, 1600년에는 당시 원장이었던 노사개와 유사인 정경운 등이 서원 이전을 추진하였다. 서원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민 간에 큰 갈등이 빚어졌고, 이전을 추진하던 중에 노사개는 중풍에 걸리고 말았다.²⁰⁾ 우여곡절 끝에 서원은 이전하였으나 함양 사족층은 분

20) 원창애, 앞의 논문, 252쪽.

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개는 죽음을 맞이했으니 노사개를 추모하는 제문은 당연히 정경운의 몫이었을 터이다. 노사개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하늘이 온전한 자질을 주고서도 어찌 운명은 그리 박하게 하였나?”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다. 뜻을 같이 했던 인물을 추모하는 제문을 통해서 정경운의 안타까움과 더불어 문장 솜씨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일기에는 두 편의 說이 실려 있다. 한 편은 1605년 12월 29일자 일기에 수록된 것으로 정경운이 직접 ‘牧丹側柏說’이라고 제목을 붙인 글이고, 다른 한 편은 1604년 12월 17일자에 수록된 글로 제목이 전하지는 않는, 소위 ‘벼루설’로 불리는 글이다.

‘설’은 일상에서의 관심사나 작자가 평소에 펴고자 하는 도의 취지에 맞는 제재를 생활 주위에서 취하여 심도 깊게 분석하고 해석해 가면서, 깨달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자기만의 견해를 펴고, 나아가 그 도가 일반화되는 과정을 유추를 통해 확대해 가면서, 인간의 상도를 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²¹⁾ 일상의 소재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전하고자 하는 글이 설 문학인 바, 정경운은 모란과 측백, 그리고 벼루를 소재로 작품을 남긴 것이다.

<목단측백설>은 어리석은 주인이 심어 놓은 모란과 측백에 대해 나그네와 은자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통해서 측백의 절개를 논한 글이다. 나그네가 모란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은자는 외면을 중시하는 것을 군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측백을 군자의 짝이라고 하였다. 주인이 모란과 측백 둘을 심은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판단하게 하려는 의도이며, 모란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측백의 절개를 본받으라는 의도를

21) 양현승, 『한국 ‘說’문학 연구』, 박이정, 2001, 100쪽.

보이고자 한 것이다. 임금의 절개도 이와 다르지 않아 모란과 측백을 통하여 사람을 살펴보는 법을 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벼루설>은 “내가 호남을 향해 가다가 雲峰에 있는 徐湜의 집에서 묵었는데, 책상 위에 있는 벼루[硯子] 하나를 보았다.”로 시작한다. 그 벼루에는 소무의 그림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림의 의도를 서술하고는, 말미에서 “애석하구나! 이 벼루가 가난한 선비의 집에 묻혀 있기만 하고, 벼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으니, 안타깝다.”고 하였다. 이 글을 통해 결국 사대부를 평가함에 있어 소무와 같은 절개가 필요함을 말하였고, 이러한 절개를 가진 사람이 임금 곁에 있지 못하고 시골에 머물러 있음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²²⁾

모란, 측백, 벼루를 소재로 설 작품을 창작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절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바, 이 작품에서도 정경운의 문학적 재능은 잘 드러나고 있다.

산문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글이 죽음에 대해 기록한 卒記이다. 의병으로 활약하다 죽은 손인갑의 졸기(1592년 6월 29일), 절친한 친구인 방극지의 졸기(1595년 6월 21일)가 그것이다. 그리고 졸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큰 딸 정아(1597년 8월 21일), 아들 주복(1598년 6월 27일), 둘째 딸 단아(1600년 11월 26일), 아내(1604년 12월 30일) 등의 죽음을 맞이하고 쓴 기록은 죽음에 대한 글로 뛰어난 문장 실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上舍 房克智의 訃音을 들었다. 아! 극지가 죽었구나! 천명인가, 운명인가. 이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의 도는 믿기 어려움이 진실로 이와

22) 윤호진, 앞의 논문, 152쪽.

같은가. 극지의 이름은 處仁이며, 기유년(1549, 명종 4)에 태어났다. 어려서 부터 영특하였고, 과거 공부를 하여 병자년(1576, 선조 9)에 進士에 합격하였다. 과감하게 길을 바꾸어 오로지 학문에만 뜻을 두어, 來庵·寒岡 두 선생을 師事하였다. 배우기를 힘쓰고 뜻을 돈독하게 하여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홀연히 속세를 벗어날 생각이 있어서, 智異山 아래 岳陽의 남쪽 하천가에 집을 짓고 살았다. 우뚝하게 단정히 앉아 切磋琢磨하고, 학식 없는 선비들 가르치기를 오래 해도 따분해 하지 않았으며, 참된 성품을 기르면서 산에 살아도 마음은 千古에 노닐었다. 많은 책을 두루 읽고 의리를 연구하되 물이 스며들듯 넉넉하여 명성이 사방에 내달렸다. (중략)

을미년(1595, 선조 28) 봄에 처자를 이끌고 求禮縣으로 가서 타관살이를 한 지 반년 만에 疫疾이 크게 번져, 집을 수차례 옮겼다. 구례의 수령은 본래 친분이 있었으므로 그를 객관에 맞이해 들였다. 곧이어 瘡癰에 걸려 6월 18일에 公館에서 죽었다. 아! 슬프도다! 넓고 씩씩한 도량과 탁월한 식견, 굳센 논변, 우뚝한 모습을 이제 다시 볼 수가 없으니, 친구를 잃은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세상이 어지럽고 길이 멀어 또한 달려가서 곡하고 염습할 수도 없으니, 더욱 남쪽을 바라만 보고 오열하는 지극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겨우 그 언행의 대강만 기록하지만, 공의 평생 工力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잘 기록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1595년 6월 21일)

인용한 글은 절친한 친구 방극지의 부음을 듣고 기록한 절기이다. 급작스런 친구의 죽음을 접하고 격한 감정을 쏟아낸 후에 방극지의 간단한 이력과 더불어 주요 행적을 중심으로 죽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글의 끝 부분에는 친구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방극지의 평생 공력은 잘 기록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 글은 방극지의 소전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바,²³⁾ 한 인물의 전기를 엮어내는 솜씨를 엿볼 수 있다.

23) 윤호진, 앞의 논문, 146쪽.

정경운은 이렇게 다양한 양식의 산문을 일기에 수록하고 있다. 그의 산문을 읽다보면 상당한 문장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은 쉽게 간취해 낼 수 있다. 다양한 글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의병 활동을 주창하는 통문을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함양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명망을 얻은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문장가로서의 명망은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의 욕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일록』은 정경운의 문학적 재능을 표출한 장으로도 볼 수 있다. 정경운의 문학적 재능은 과거에 도전하게 하는 힘이었다. 조선조 사대부의 지향은 과거를 통한 관직진출임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도 전란이라는 위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도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적 재능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의 욕망을 일기 속에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

정경운은 문장과 의병활동을 통해 함양은 물론 주변 지역사회의 기대를 안고 있었고,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당시 정치적 상황 또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과 함께 광해군의 즉위로 인한 정인홍의 중용은 정경운으로 하여금 관직에 진출하려는 욕망을 더욱 더 강하게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IV.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의 욕망 표출과 전란의 극복

정경운은 함양 및 주변 지역의 사족들과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해 나가며 결속을 다져 왔다. 특히 전란의 과정 중에는 의병 모집 등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남계서원의 유사를 맡으면서 주변 인물들과 교류 활동을 통해서 지속했다.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 내용은 『고대일록』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 기록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류 인물들의 과거 응시와 합격 소식, 관직 제수나 변화 상황 등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 1605년 12월 7일

吳翼承·姜克修가 別擧에 응시하였다. 鄭雲叟·曹挺立 형제도 이에 참여하였다.

○ 1602년 윤2월 20일

朴叔彬이 同副承旨가 되고 朴公幹이 兵曹佐郎이 되었으니, 동지의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이처럼 일기에는 내암 문인들이 과거 응시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고, 관직에 제수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정경운이 교류 인물들의 과거 응시나 관직 제수에 관심을 갖고 일기에 기록한 것은 정경운 자신의 과거나 관직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활약하면서 문재가 익히 드러났기에 그 욕망은 더욱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중에도 문과와 무과는 설행되었다. 전란 중인 1592년~1598년까지 두 번의 식년 시험을 제외하고 비정기 시험 12회의 문무과가 설행되었다. 생원진사시는 식년과 중광 시험만 설행되었기 때문에 전란 중에는 설행되지 않았다. 12회의 비정기 문무과 시험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과거는 지방 별시 3회, 중시 1회가 있었다. 지방 별시는 1592년 용만별시, 1593년 전주별시, 1595년 해주별시 등이다. 그 외 8회의 문무

과 시험은 서울에서 행해진 비정기 시험이었다.²⁴⁾ 과거 중 초입사를 위한 시험인 문무과는 조선시대에 입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편이었다. 선비가 입신하기 위해서는 과거 응시가 필수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었다. 더욱이 중종 대에 법제적으로 사족의 범주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포기할 수 없었다.²⁵⁾

전란 중 정경운이 관직 진출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인 흔적들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교유했던 인물들의 과거 응시나 관직 진출의 기록을 통해서도 물론이고, 자신의 과거 시험의 잦은 응시와 함께 과거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그것이다. 그리고 함양이라는 지역에 거처하면서 전국적인 동향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기록도 관직 진출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 1593년 10월 15일

왕은 도성으로 돌아오셨고 東宮은 海州에 남아 계신다. 왕이 바닷가를 지나 산곡을 옮겨 다니다가, 이제 한 해가 지나서야 마침내 돌아왔다. 옛 궁궐에 기장만 무성한 것을 보니 감회가 과연 어떠하시겠는가. 2백 년 종묘사직과 宮室이 단지 타다 남은 잿더미만 있을 뿐이니, 主上이 이곳에 도착해 보고 품은 생각이 어떠하시겠으며, 어찌 臥薪嘗膽의 생각이 없으시겠는가. 만약 지금부터라도 정치를 혁신하여 마치 해와 달이 다시 빛나는 것처럼 환하게 스스로를 새롭게 하신다면, 中興의 위대한 功烈을 날을 꼽으며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백면의 서생이 강호에서 못별들이 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왕을 향한 생각 감당할 수 없구나!

‘백면의 서생’이 중흥의 위대한 공렬을 이루기를 기약하고 강호에서

24) 원창애, 앞의 논문, 243쪽.

25) 원창애, 앞의 논문, 244쪽.

왕을 향한 생각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로써 자신의 관직 진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관직 진출에 대한 욕망은 끊임없는 과거 응시로 표출되었다. 이는 일기에 기록된 과거 도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경운의 과거에 대한 도전과 좌절의 기록을 들어보자. 정경운은 전란의 와중에 시행되었던 별시를 통해 과거에 도전했다. 즉, 1593년 왕세자인 光海君이 친히 전주에 와서 전주별시를 치뤘는데, 정경운은 이 과거 시험에 친구들과 함께 응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1593년 12월 22일

朴公幹·盧志夫가 나에게 通文을 보내왔다. 나는 書院에서 상소문을 작성했다. ○ 東宮의 행차가 全州에 머물렀는데, 군사들을 위무하고 나랏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또 文武 庭試를 시행했다.

○ 1593년 12월 23일

나는 書院으로 갔다. 上疏를 논의하고 朴公幹·盧志夫·盧景紹와 함께 길을 떠나 全州로 향했다. 앞으로 東宮에게 상소를 올리고, 또 庭試에 응시하고자 한 것이다. 오늘 저녁은 雲峰의 釜山村에서 숙박했다.

○ 1593년 12월 25일

동행한 다섯 사람이 함께 南原의 安和村에서 숙박했다. 오늘 밤 눈이 내렸다. ○ 세자가 문묘에 참배했다.

○ 1593년 12월 26일

晡時에 全州城 안으로 들어갔다. ○世子가 影殿에 참배한 뒤 流民들에게 구휼미를 나누어 주었다.

○ 1593년 12월 27일

庭試에 들어가 왕세자의 玉顏을 우러러보았다. 表題가 나왔는데, “晉나라 刀協이 낙양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자, 이에 郊祀의 禮를 의논했다.”라 되어 있었다. 출제 후에는 북쪽 亭子로 나가시어 활쏘기 시험을 관람하셨다.

○ 1593년 12월 29일

朴公幹·盧志夫와 나는 世子侍講院에서 명을 기다렸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輔德을 집으로 찾아가 뵙고 인사하고 물러났다. 오후에 성 밖으로 나가 快心亭에 올라 구경하고 돌아왔다. 오늘 아침에 文科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尹日吉 등 9명이 합격했다. 이날 밤 南原 權恒의 집에서 숙박했다.

光海君이 전주에 머물면서 군사를 위무하고 나랏일을 감독하는 가운데 문무과 庭試를 시행했다. 정경운은 친구인 박공간, 노지부, 노경소와 함께 전주로 가서 정시에 응시했다. 시험장에 들어가 왕세자의 옥안을 우러러 본 사실도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 시험에서 윤길 등 9명만 합격하고 같이 간 친구는 모두 낙방한 채 되돌아와야 했다.

정경운은 1594년에도 두 번의 문과에 응시하였다. 8월에 있었던 시험은 초장만 실시되었는데, 초시시험이 취소되어 중장 시험은 없었다.

○ 1594년 7월 8일

察訪 李汝涵 어른이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 혼사에 대한 일을 논의하여 왔다. ○ 과거가 8월 4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 1594년 8월 4일

비가 왔다. 나는 科擧場으로 들어갔다. 유생들이 겨우 100여 명이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죽어 없어지고 재물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시험관은 李魯·高尚顏·盧景祿이고, 試題는 <朝服守宗廟賦>와 <哀秦吉了詩> 였다.

○ 1594년 8월 5일

退場의 公文이 비로소 도착했는데, 初場에서 제출한 답안이 모두 채점되어 방이 나붙었다. 비록 내가 장원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李汝唯 어른이 나를 불러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 從弟 德將도 역시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낙방하였다. 그래서 잠시 희롱하는 말로 농담을 하였다.

8월 4일로 과거일이 결정되고, 정경운은 다시 과거에 도전하였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유생이 겨우 100여명이라고 기록했다. 정경운은 전란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거나 재물이 없어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시험에서 장원을 하였다. 정경운은 이 초장 시험에서 장원을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거기서 끝이었다.

1594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별시의 초시가 각 지방별로 시행되었다. 경상우도는 거창에서 초시가 시행되었다. 이 시험에서 정경운은 친구 노사상과 함께 합격하였다.

○ 1594년 10월 8일

나는 居昌으로 갔는데, 別擧에 응시하기 위해서이다. 도중에 城主를 찾아 뵈었는데, 성주는 시험관으로서 갔다. 從弟 德將도 함께 갔다.

○ 1594년 10월 9일

새벽에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城主와 三嘉 수령 高尚顔과 晋州 判官 朴思齊가 시험관이 되고, 試題는 <俛出袴下論>과 <金門大隱賦> 였다. 세 번이나 고쳐 쓰고 나니, 날이 이미 午時가 되었다. 구상할 시간이 촉박해서 생각을 전개할 수 없었으니, 한스럽다. ○ 李任仲·吳翼承·李善守와 만나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 1594년 10월 12일

城主가 居昌에서 돌아왔다. 別擧의 榜目을 가지고 도착하였는데, 星州에 사는 朴明胤이 장원이고, 나와 盧志夫는 參榜이었다. ○ 文劼이 죽었다고 한다. 매우 애통하다.

정경운은 이 시험에 많은 기대를 한 것 같다. 시험을 치르기 10여 일 전에 왕세자를 모시고 경연에 참석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의 욕망이 꿈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 1594년 가을 9월 26일

이날 밤 꿈에 왕세자를 모시고 경연에서 나랏일을 의논하였는데, 곁에서 모시는 신하와 다름이 없었다. 조짐이 미리 보인 것이 아니겠는가.

參榜으로 초시를 통과하여 노사상과 함께 11월 20일에 서울에서 시행되는 殿試에 참석하였는데, 함양 수령은 시험을 보러 가는 이들에게 명지와 백지를 주었다. 이들에 대한 지방 수령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 1594년 11월 7일

나는 志夫와 함께 서울길을 출발하여, 雲峰에서 德將의 집에 유숙하였다. ○ 고을 원님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더니, 원님이 名紙 3장과 白紙 2권을 주었다.

○ 1594년 11월 21일

殿庭에 들어갔다. 제목이 나왔는데 <본국이 교사 몇 명을 청하여 머물게 하고 軍民을 훈련시키도록 하다.[本國請留教師數人訓練軍民]>였다. 시험관은 右相 金應南·判書 金命元·李忠元이었다. 우리들은 본래 對偶의 문장을 연습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 構想하자니 영성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었다. 이른바 비파를 들고 齊王의 문에 서 있는 꼴이었다.

○ 1594년 11월 23일

오후에 榜이 나붙었는데, 都事 宋駿 등 19인이 登第하였다. 本道에는 李光胤 한 사람뿐이고, 湖南은 없고 湖西는 李謙뿐이다. 志夫와 함께 서로 혀를 차며 짐을 꾸려서 돌아왔다. 한강에 도착하니, 얼음이 반쯤 풀려 굳지 않아서 돌아와 龍山倉에 들어와 유숙하였다.

노사상과 함께 상경하여 21일에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지방 유생인 이들은 대우 형식의 문장을 습작한 적이 없어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다. 큰 기대를 안고 도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 시험에서 실패한 후에 전란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

나 여전히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에의 욕망은 간절했다. 몇 번이나 임금과 마주하는 꿈을 꾸었다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

○ 1595년 10월 21일

조카가 居昌에 갔다. ○ 오늘 밤 꿈에 甲科에 급제하여 임금의 용안을 우리러 뵈었다. 조짐이 미리 보인 것이 아니겠는가.

○ 1596년 3월 16일

아침 동안에 가는 비가 내렸다. ○ 이날 밤 임금 앞에서 모시는 꿈을 꾸었다. 近侍하는 신하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임금의 손에서 御饌을 받아 내려 주었다. 이는 무슨 조짐인가.

중전 후인 1601년에 치러진 시험에 다시 도전했으나 좌절을 겪고 만다.

○ 1601년 정월 26일

동틀 무렵에 科場에 들어갔다. 賦의 제목은 <三改出哭輟殮>이었고, 詩는 <寄李使君借曲江圖經>이었다.

○ 1601년 정월 28일

동틀 무렵 科場에 들어갔다. 오후의 試官은 權縉·李春英·李器 등이었다. 내가 詩와 賦를 함께 봉했다 하여 채점조차 받지 못하고 내걸렸으니, 이 역시 運數이다. 가소롭도다! 나이가 오십에 가까운데, 얼굴 두껍게도 과거시험을 보았으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다만 어머님께서 임종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귀에 생생함을 생각한 까닭으로, 재주가 열등함을 잊고 몇 번이나 시험을 쳐서 매번 떨어지니, 한탄스럽다.

○ 1601년 2월 2일

나와 金拜言이 함께 伊谷으로 찾아가 도망간 婢의 상황을 물었다. 金慶熙와 함께 靑里로 가고자 하였으나, 金이 승낙하지 않았다. 오후에 김배언과 이별하고, 저녁 무렵에 鄭士訥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잤다. 나는 과거에 落榜했고, 오직 姜克修만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이가 5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얼굴 두껍게 과거시험을 보았으니 부끄러울 뿐이고, 어머니의 임종시 명령을 지키려고 몇 번이나 응시했으나 매번 떨어지니 한탄스럽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시험에서 연속으로 좌절을 겪자 공도회까지 응시한다. 공도회는 정식 과거 시험은 아닌데, 조선초기부터 지방의 유생들에게 학문 장려를 위해서 실시한 제도이다. 이 시험으로 제술과 강경을 따로 시험하여 제술에서 5명, 강경에서 5명을 선발하여 생원진사시의 회시에 직부하는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정경운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고을 수령은 공도회에라도 응시하도록 권면하였다. 정경운은 공도회까지 응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문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생원 혹은 진사를 획득해야 되었기 때문이다.²⁶⁾

○ 1601년 11월 29일

수령이 山陽으로 가면서 나더러 都會를 보라고 재촉하였으니, 내 신세가 안됐구나. ○大樹에 가서 河子益과 林汝受 등을 만났고, 그리하여 상소 때 타고 갈 말을 얻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 1601년 12월 2일

都會의 賦 제목은 <空中樓閣>이고, 詩는 <홀로 봄바람을 마주하며 웃음을 그치지 않네.[獨對春風笑未休]>이고, 論題는 <胡康侯가 힘써 秦檜를 추천하다.[胡康侯力薦秦檜]>라고 들었다.

1601년 12월에 치러진 공도회에서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26) 원창애, 앞의 논문, 245쪽.

아쉬움은 꿈으로 표출되었다. 과거에 급제하는 꿈을 또 꾸고 있다.

○ 1601년 12월 16일

비가 오다가 개니 바람이 어지럽게 불었다. 병으로 웅크리고 나가지 못하였다. ○ 꿈에 文子善이 나에게 떡 세 개를 주었는데, 무슨 조짐인가. 또한 과거에 급제하는 꿈을 꾸었다. 오늘 밤에 진눈깨비가 내렸다.

1602년에는 유달리 많은 꿈을 꾸었다. 모두 과거와 관련된 꿈이다.

○ 1602년 정월 20일

參奉 李華叔과 趙守一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 오늘 밤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람이 紅榜을 가지고 찾아오는 꿈을 꾸었는데, 무슨 조짐인가.

○ 1602년 5월 27일

오늘 밤 꿈에 公幹을 보았는데, 마치 朝班에 함께 들어가는 듯했으니, 이것은 무슨 조짐인가.

○ 1602년 6월 10일

아침에 날이 개었다가 저녁에 비가 내렸다. 오늘 밤 꿈에 조정의 명령을 받았다. 이 무슨 엉뚱한 조짐이 이와 같은가. 이른바 南柯一夢과 같은 것이다.

○ 1602년 9월 7일

오늘 밤 꿈에 임금을 뵈었다. 나는 玉輦을 댄 다음에 산록을 오르내렸는데, 앞뒤의 儀仗이 매우 성대하였다. 나는 일찍이 임금을 가까이서 모신 적이 없었는데 꿈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무슨 조짐인가.

○ 1602년 9월 18일

오늘 밤 꿈에 왕을 榻前에서 모셨고, 선생께서 임금과 함께 주무셨다. 임금께서 나를 부르시어 술을 내리셨다. 명령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나아갔더니 임금께서 조용히 말씀하기를, “이것은 선생이 좋은 일을 누리는 모임이니, 光武帝가 嚴子陵과 함께 누웠던 일에 비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뜻밖의 꿈이 이처럼 분명한데, 이것은 무슨 조짐인가.

절친한 친구 박공간과 함께 조반에 들어가거나 조정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꿈을 꾸었다. 심지어 스승인 정인홍과 임금이 꿈속에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정인홍을 매개로 하여 출사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꿈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²⁷⁾

1603년에는 계속되는 실패로 과거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으나 집안사람들과 주변의 권유로 또다시 도전을 했다. 그러나 이것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 1603년 2월 10일

제사를 지낸 뒤에 玄風에 갔다. 나는 과거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위로 는 집안에서 재촉하고 다음으로는 수령이 권유하기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다. 억지로 가게 되었으니, 개탄스럽다.

○ 1603년 2월 13일

답이 온 뒤에 시험장에 들어갔다. 試官은 申橈·申景進, 그리고 수령이었다. 賦는 <秣額應募>이고, 詩는 <送徐庶之魏日入畢書僅免曳白首> 였다. 해가 들어갈 무렵에야 쓰기를 마쳤는데, 겨우 흰 종이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을 면했다. 센머리로 과거에 나아가려니, 더욱 한탄스러웠다.

○ 1603년 2월 15일

科場에 들어가니 제목은 顔子の 克己復禮와 孟子的 集義에 대해 묻는 것인데, 말하는 바가 같지 않음을 의심하였다.

○ 1603년 2월 20일

경상 좌도와 우도의 科榜 기별이 왔는데, 鄭繼이 장원하였고, 咸陽에서는 鄭弘緒·盧侗 두 사람뿐이었고, 나는 뽑히지 않았다. 과거를 그만두려고 결심하였다가 남들의 권유를 받아 시험에서 문장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한탄스럽다.

27) 정우락, 앞의 논문, 174쪽.

이때 정경운의 나이는 48세였다.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쉰머리로 과거에 나가려는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웠다. 과거를 그만두려고 결심하였다가 남들의 권유를 받아 억지로 응시했으나 기대만큼 되지 않아 “한탄스럽다”고 탄식하고 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는 욕망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는 꿈은 망령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 1603년 12월 28일

꿈에 관직에 임명되어 謝恩肅拜하였으니, 괴이하다.

○ 1604년 정월 19일

오늘 밤 侍從하는 신하가 되어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꿈을 꾸었으니, 이것은 무슨 조짐인가?

○ 1604년 5월 19일

오늘 밤 꿈에 鵝溪 李相公을 보았는데, 甲字를 크게 써서 나에게 주었다. 이것은 무슨 조짐인가? 괴이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관직에 임명되어 사은숙배하는 장면, 시종하는 신하가 된 모습, 아계 이산해가 갑자를 내린 장면 등이 꿈에 나타나 관직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후로는 꿈에 대한 기록이 없다. 대신 누가 어느 시험에서 급제를 하였는지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등에 대한 기록만 하고 있다. 스스로는 과거를 포기했으나 여전히 과거는 주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 1605년 8월 11일

오늘은 바로 解發하는 날이다. <음식을 대하고서 어머니가 음을 알다[對食識母來]> 賦와 <밤이 다했는데 다시 등불을 잡다[夜闌更秉燭]> 詩가 출제되었다.

○ 1605년 8월 15일

성묘를 하러 동쪽으로 갔다. 그런데 내리는 비가 마치 물을 퍼붓듯이 하니, 묘에 제사를 올릴 수 없었다. 너무 한탄스러웠다. ○ 出榜에 進士는 寧海의 南慶薰이었고, 生員은 丹城의 李惟悅이었고, 咸陽에서는 金得鎔·李公佃·姜渭琇 등이 여기에 참여했다.

○ 1605년 12월 7일

吳翼承·姜克修가 別舉에 응시하였다. 鄭雲叟·曹挺立 형제도 이에 참여하였다.

○ 1605년 12월 24일

凌陰에 얼음을 넣었다. ○ 嶺南에서는 한 사람도 別舉에 折桂한 사람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다. 너무 한탄스럽다.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의 기회를 얻지 못하자 納粟受職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납속수직에 대해서 정경운은 시행 초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주변인물들이 납속수직을 하자 비하하던 초기의 자세는 사라지고 빈부격차에 따라 수직 고하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선망의 눈으로 한편으로는 신세를 한탄하는 등 그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납속으로 선친을 추증했을 경우 신주를 고치고 제사를 올리는 등 엄숙한 격식을 치렀다. 납속수직일지라도 사족층에게 관직 획득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셈이다.²⁸⁾

○ 1597년 7월 23일

家廟에 햅쌀밥을 올렸다. 그리고 가묘에 告由하고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追贈된 副正과 淑人으로 位版을 改題했다. … <결(缺)> … 아픔이다.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지도 못했고, 또 才藝로 등과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28)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362쪽.

빛내지도 못하였으니, … <결(缺)>… 슬픈 마음이 끝이 없다.

납속으로 부모를 추중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재예로 등과하지 못해 할 아버지와 아버지를 빛내지 못한 것에 대해 “슬픈 마음이 끝이 없다”고 자책하고 있다.

정경운은 전란기간 내내 관직 진출을 염원하면서 과거응시, 납속수직 등 관직 진출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이란 관직 등용문이자 상층 지배 신분이 되는 길이었다. 더구나 점차 관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반 가문의 특권을 유지하려면 중앙 정치와 지속적인 연결망이 필요했고 그것은 곧 가문의 많은 구성원이 관직에 진출하는 일이었다.²⁹⁾

정경운은 鄭仁弘의 문인이다. 스승의 중앙 정계 진출과 활약상은 정경운으로 하여금 관직 도전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운의 지속적인 과거시험 도전은 정인홍과 정인홍 문인들의 관직 진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인홍의 문인은 경상우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중 정경운은 함양 지역의 문인으로서 임진왜란 때 정인홍을 도와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³⁰⁾ 주지하다시피 정인홍은 己丑獄死를 계기로 본격적인 복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주도하면서 향촌에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북의 대표자로 떠올랐다. 정인홍이 이끄는

29) 정해은, 앞의 논문, 94쪽.

30) 정인홍의 문인은 『내암집』에 등재된 문인들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 결과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수건, 「남명학과 의병활동의 역사적 의의」, 『남명학연구』 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15쪽.)

대북은 임란 후 남인정권과 서인정권을 차례로 몰락시켰으며, 난후 정국 수습의 책임을 띠고 선조 35년(1602) 대사헌으로 중앙정계에 재진출하였다. 몇 번의 부침이 있었으나 광해군 즉위와 함께 광해군의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대북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³¹⁾ 정인홍의 정계 활약상은 그의 문인들에게는 관직 진출의 동기가 되었다.

정경운은 자신과 교유한 인물들, 특히 정인홍 문인들의 과거 급제와 관직 진출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일기에 기록하였다. 이는 자신의 관직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인홍 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명학과 내에서 이어지는 사제간의 끈끈한 의리와 존숭의 모습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 극복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인 바,³²⁾ 정인홍 문인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스승 정인홍의 영향 못지않게 정경운의 능력, 특히 문학적 재능은 그를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자신은 물론 주변의 기대는 그의 문학적 재능에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재능이 있었기에 정경운은 전란이라는 상황에서도 과거시험이나 관직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는 욕망은 전란이라는 불안한 시대를 이겨내고 자신과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31) 우인수, 「내암 정인홍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역할」, 남명학연구원 편, 『내암 정인홍』, 예문서원, 2010.

32) 신병주, 앞의 논문, 343쪽.

V. 맺음말

『孤臺日錄』은 경상우도 지역인 咸陽에서의 전란 체험 양상과 전란 이후 재건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과 동시에 鄭慶雲 개인의 전란 극복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고대일록』은 여타의 일기와는 달리 다양한 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일기에는 고사나 한시를 인용한 글이 있는가 하면 정경운이 직접 지은 詩와 散文 등을 수록하기도 했다. 정경운이 일상에서 늘 문학을 가까이 하고 있었으며, 문학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시 이외에 산문의 경우에는 안음·거창에 보내는 <通文>, 도사 김영남에게 보낸 <書簡文>, 제문인 <祭盧參奉文>, <移安祭文>, <祭智異山祈雨文>, 說문학인 <牧丹側柏說>, 친구와 가족의 죽음을 애도한 <卒記>, 그리고 <自傳> 등이 있다. 특히 유사로 활약하면서 통문을 작성한 점은 정경운이 함양 지역을 대표하던 문장이였음을 알게 해준다. 문학적 재능은 과거에 도전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란 중 정경운이 관직 진출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인 흔적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과거 시험의 잦은 응시와 함께 과거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그것이다. 정경운은 전란기간 내내 관직 진출을 염원하면서 과거응시, 납속수직 등 관직 진출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스승 정인홍의 중앙 정계 진출과 활약상은 정경운으로 하여금 관직 도전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스승의 영향과 정경운의 능력, 특히 문학적 재능은 그를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정경운은 전란이라는 상황에서

도 과거시험이나 관직 진출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란이라는 불안한 시대를 이겨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길은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대일록』은 정경운의 개인 일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록한 글임과 동시에 함양 지역에 거주했던 한 개인으로서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 글은 한 개인의 전란 극복 과정을 『고대일록』을 통해서 읽어내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 남명학연구원(2009), 『역주 고대일록』, 정경운 지음, 태학사, 2009.
- 권기중, 「임진왜란 시기 향리층의 동향과 전후의 향리사회 -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101-125쪽.
- 김경수, 「임진왜란 관련 민간일기 정경운의 『고대일록』 연구」,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287-323쪽.
- 김윤우, 「함양 의병유사 정경운과 『고대일록』」, 『남명학연구』 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2, 141-169쪽.
- 김성우, 「임진왜란 이후 전후복구사업의 전개와 양반층의 동향」,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1998, 281-320쪽.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남명학연구원 편, 『내암 정인홍』, 예문서원, 2010.
- 노영구, 「『고대일록』을 통한 임진왜란 이해」,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17-31쪽.

- 민덕기, 「임진왜란기 정경운의 『고대일록』에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문건정보 - 실록의 관련 정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141-171쪽.
- 박병련, 「『고대일록』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상황과 의병활동의 실상」,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235-272쪽.
- 설석규, 「정경운의 현실인식과 고대일록의 성격」,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187-233쪽.
- 신병주, 「『고대일록』을 통해서 본 정경운의 영원한 스승, 정인홍」,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307-347쪽.
- 오이환, 「남명집 판본고(1)」, 『한국사상사학』 1, 한국사상사학회, 1987, 171-205쪽.
- 원창애, 「『고대일록』을 통해 본 함양 사족층의 동향」, 『남명학연구』 3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2, 229-260쪽.
- 윤호진, 「고대 정경운의 시문과 작품세계」, 『남명학연구』 4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4, 121-155쪽.
- 이선희, 「임진왜란 시기 함양 수령의 전란대처 - 『고대일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진단학회, 2010, 95-123쪽.
-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8, 1-277쪽.
- 정우탁,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157-188쪽.
- 정해은,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 사족의 전쟁 체험 - 함양 양반 정경운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65-100쪽.
- 최경진, 「『고대일록』을 통해 본 정경운의 사우관계와 학문 경향」,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2, 1-52쪽.
- 최재호, 「남명학과의 임진왜란 전쟁실기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1, 1-256쪽.
- 한명기, 「『고대일록』에 나타난 명군의 모습」,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275-306쪽.

Abstract

Jeong Kyung-un's Way of Overcoming the Turmoil of War as
Viewed from 『*Godaeillok*』

Jang, Kyung-Nam

This study examines - through 『*Godaeillok*』(Daily Journal of Jeong Kyung-un) - how an individual could overcome the turmoil of Imjin Waeran (the Japanese Invasion of 1952). Unlike other journals, 『*Godaeillok*』 used distinctively different expressions. The Journal contained diverse-style articles, including Chinese poems, notices, letters, memorial articles, editorials, commentaries on dead people, and biographies. This suggests that Jeong Kyung-un was an excellent writer, and presumably that his literary talent helped him pass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and enter the officialdom.

Evidences were discovered that during the war, Jeong Kyung-un tried to enter the officialdom. He tried numerous times to sit for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and wrote down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Throughout the war, he longed to enter the officialdom, but was not so successful. Using his literary talent, he continued efforts to enter the officialdom despite the war situations, and tried to sit for the examination whenever the opportunities came. Such ambition sustained him through the turmoil of war, and finally brought honor to him and his family.

Key Word

Godaeillok, Imjin Waeran(the Japanese Invasion of 1952), Jeong Kyung-un, Ham yang, diary, war

▪ 논문투고일 : 2015.7.13 심사완료일 : 2015.8.14 게재결정일 : 2015.8.14